

“조영욱은 포스트 조규성” 김천상무 공격 축구 기대

수준급 신병 선수 18명 합류 단일 기수로 역대 최대 규모

성 감독 “다양한 포지션 시도” 조영욱 “K리그2 우승해 보답”

최근 김천상무프로축구단에 합류한 공격수 조영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천은 23일 신병 선수 18명을 받았다. 단일 기수로는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강현부, 윤종규, 원두재, 김진규 등 수준급 자원들이 대거 합류했지만, 그

중 가장 시선을 끄는 이는 FC서울에서 온 조영욱이다.

성현수 감독은 역시 갓 입대한 조영욱을 향해 남다른 기대감을 내비쳤다.

성 감독은 “포스트 조규성을 뽑으면 조영욱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2023 시즌 조영욱에게 다양한 포지션을 시도해볼 것”이라며 “성장이 가장 기대되는 선수”라고 했다.

2022 카타르월드컵 이후 전국적인 스타로 부상한 조규성은 ‘공격수 사관학교’ 김천 입대를 기점으로 성장가도를 달렸다.



김천상무의 공격수 조영욱. 김천상무 제공

2021년 입대 뒤부터 기량이 급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 조규성은 김천에서 꾸준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몸집을 키

웠고, 골 감각도 예리하게 가다듬었다. 지난해에는 K리그1에서 17골을 폭발시키며 득점왕까지 올랐다.

최근 스코틀랜드의 강팀 셀틱에 합류한 오현규 역시 김천상무에서 기량이 가파르게 상승한 사례다.

1999년생인 조영욱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입대를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영욱은 “사실 군대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상무에서 성장한 선수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했다”며 “나 또한 가서 더욱 성장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입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데뷔 후 줄곧 서울에서만 뛰었던 조영욱은 K리그2가 처음이다.

조영욱은 “생각했던 것보다 K리그2가 전투적이고 거친 것 같다. 긴장이 많이 되지만 우승을 통해 직행 승격하는 것이 목표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어 “김천상무에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좋은 선임들, 동기들과 함께 시즌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천은 3월 1일 오후 4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충남아산FC와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신준연 기자 shyoung3@maeil.com

성남시청 소속 빙상팀 코치 선발 호소문 파장

빅토르 안·김선태 지원에 논란 선수단 “공정·투명한 선발” 성명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간판 최민정은 비롯한 성남시청 빙상팀 소속 선수들이 낸 ‘공정하고 투명한 팀 코치 선발해달라’는 호소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러시아로 귀화한 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을 지도한 빅토르 안 등이 성남시청 코치직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은 바 있다.

최민정, 이준서, 김건희, 김길리, 김다겸, 서범석 등 성남시청 소속 쇼트트랙 선수 6명은 신임 코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인 31일 ‘코치 채용에 대한 선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신의 SNS에 성명서를 공개한 뒤 “저희는 이번 코치 선발 과정이 외부의 영향력에 의한 선발이 아닌,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원자 중 코치, 감독 경력도 가장 우수하고 역량이 뛰어나며 소통이 가능한 코치님이 오셔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9일 빙상팀 코치를 뽑기 위한 채용 공고를 냈다. 이 자리에 지원한 후보 7명 중에는 빅토르 안을 비롯해 그와 함께 중국 대표팀을 지원한 김선태 전 감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빙상지도자연맹은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빅토르 안은 러시아 귀화 전 올림픽 금메달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가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지 물렸다’는 거짓말을 했고 김 전 감독도 한국 대표팀 감독 시절 심석희의 폭행 피해를 허위 보고해 징계를 받은 인물이기에 국내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반대 성명을 냈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29일 “빅토르 안과 김선태 전 감독은 상위 2배수 후보에 들지 않았다”고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31일 선수들의 호소문이 나오면서 논란이 재점화되자, 성남시는 코치 채용을 무기한 연기하고 지도자 공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최민정은 자신의 SNS 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 내용을 수정해 “나를 비롯한 소속 선수들이 쓴 입장문은 (빅토르 안과 김선태 전 감독의 탈락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9일 성남시에 제출한 것”이라며 “특정 인물을 지목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우정 기자

세징야, 주장 완장 ‘한번 더’

대구FC 주장단·등번호 공개 4일부터 다시 2차 동계훈련 ‘작년보다 더 나은 한해 될 것’



대구FC 새 시즌 주장을 맡게 된 세징야(가운데)와 부주장 이근호(왼쪽), 오승훈. 대구FC 제공

프로축구 대구FC의 세징야가 새 시즌에도 주장 완장을 찬다.

대구FC는 31일 2023시즌을 이끄는 주장단과 등번호를 공개했다.

세징야는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 주장직을 맡았다. 부주장 역시 이근호와 오승훈이 연임한다. 이들은 2022시즌 하반기부터 주장단을 맡아 부진에 빠진 팀을 독려하며 이끌었다.

올해로 대구에서 8년차를 맞이한 주장 세징야는 “내가 사랑하는 대구에서 주장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나를 믿어준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장 안에서 뿐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날 대구는 2023시즌 등번호도 함께 공개했다. 세징야(11번)를 비롯해

이근호(22번), 김진혁(7번), 홍철(33번) 등 기존 선수들 대부분 본인의 번호를 그대로 가져갔다.

돌아온 에드가는 자신을 알린 9번을 선택해 올 시즌 부활을 예고했으며, 새로 대구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 선수 세라토와 바셀루스는 각각 8번과 99번을 선택했다. 김강산은 20번, 김영준은 19번을 달고 대구에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한편 대구는 지난 2일부터 경남 남해에서 동계훈련을 치르고 있다. 4일부터는 일본 가고시마로 2차 동계훈련을 떠날 예정이다. 신준연 기자

돌아온 할로웨이, 가스공 4연패 못 막았다

21점 13리바운드 좋은 활약에도 5연속 원정 탕 팀동료 체력 부담 뒷심 부족, 수원kt에 4점차 패배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코트로 복귀해 투지를 새로이 다진 머피

할로웨이의 활약에도 석패를 당했다.

이로써 이번달 5연속 원정 경기 일정 속의 무리한 체력 부담에 끝내 고개를 숙이며 4연패 수렁에 빠졌다.

가스공사는 31일 수원kt소닉붐아레나에서 열린 수원kt와의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4라운드 경기에서 84대88로 패했다. 가스공사는 13승 23패로 여전히 9위에 자리했고 kt는 16승 20패로 공동 6위에 올라섰다.

이날 가스공사는 개인사로 잠시 전력에서 이탈했던 할로웨이가 복귀했다. 미국에서 병환이 있는 어머니를 간호하던 할로웨이의 형도 몸이 좋지않으면서 할로웨이의 고심이 깊었지만 다행히 형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코트에 복귀할 수 있었다. 멘탈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선수단과 이야기를 나누며 올 시즌 끝까지 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도훈 가스공사 감독은 “감독으로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말해준 게 고맙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할로웨이의 진심을 믿고 의지를 좋게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할로웨이는 아랑곳않고 좋은 활약을 펼쳤다. 이날 가스공사는 이대성이 22점 3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고 할로웨이는 21득점 13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완벽히 경기에 집중한 모습이였다.

다만 승부처에서 가스공사가 연속 원정경기 및 연장승부 등으로 쌓인 체력 부담은 생각보다 컸다.

경기 초반은 팽팽하게 진행됐다. 정효근과 할로웨이가 가스공사 초반 공격을 이끌었고 kt는 존스와 일데폰소를 앞세워 앞치락 뒤치락하며 시소계임을 이어갔다.

31대33으로 근소하게 가스공사가 밀린 채 시작된 2쿼터 역시 양상은 비슷하게 흘러갔다. 가스공사는 테본 스카이가 중간 득점 기회를 만들기도하고 스스로 해결하면서 득점을 쌓아갔다. kt 역시 정성우의 가세로 가스공사를 밀쳐내려 했으나 정효근과 벨란젤의 득점을 앞세운 가스공사에 추격을 허용했다.

40대43으로 시작된 후반 kt가 조금씩 점수차를 더 벌려나가기 시작했지만 끝내 가스공사가 역전을 만들어냈다. 신승민의 중거리슛과 전현우의 3점슛, 다시 이대성까지 주득점원들이 활발히 움직이며 3쿼터를 66대65로 마무리했다.

승부 막바지까지 가는 상황 속, 할로



31일 수원kt소닉붐아레나에서 열린 대구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와 수원kt의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4라운드 경기에서 넘어진 이대성을 할로웨이가 일으켜주고 있다. 할로웨이가 코트 복귀 후 맹활약에도 가스공사는 4연패에 빠졌다. KBL 제공

웨이가 존슨이 받으려던 공을 쳐내려던 것이 되려 가스공사의 림으로 들어 가버리면서 황당한 골을 내주고 말았다. kt 입장에서는 행운의 골이 터진 셈, 기세를 몰아 kt는 경기 종료 16.2

초를 남기고 86대82로 앞서갔다. 가스공사는 벨란젤의 돌파로 다시 2점차로 추격했지만 kt에 파울을 내줬고 자유 투 2개가 모두 들어가면서 6초만에 4점차를 뒤집긴 무리였다. 김우정 기자

오재일, 두 시즌 연속 ‘캡틴’

삼성 타선의 중심 역할 톡톡 송준석 올해도 2군 주장 맡아 이재현 유격수 번호 7번 받아



삼성라이온즈 오재일(오른쪽)이 2023시즌에서 주장을 맡게됐다. 삼성라이온즈 제공

삼성라이온즈 불박이 1루수 오재일이 두 시즌 연속 캡틴을 맡는다.

삼성은 31일 오재일이 1군, 송준석이 2군 주장으로 두 시즌 연속 선수단을 이끌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삼성은 지난 시즌 초반 김현군이 주장을 맡았다 부진으로 2군으로 내려가면서 외인 타자 호세 피렐라가 잠시 임시주장을 맡았다.

이후 시즌 중반을 지나 박진만 대행 체제에서 오재일이 선수단 주장을 맡아 책임을 다했다.

2021년 FA로 삼성 유니폼을 입은 오재일은 2년 연속 20홈런·90타점 이상을 기록하며 삼성 타선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월드베이스클래식(WBC) 추가 대표팀 승선에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퓨처리그 역시 송준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장을 맡는다.

삼성은 이날 선수단의 배번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김강수가 kt위즈로 FA계약을 통해 떠나면서 남은 7번은 이재현이 물려받았다. 등번호 7번은 국민유격수 계보를 이어온 김재박 전 감독과 박진만 삼성 감독 등 리그에서 정상급 유격수들이 사용해왔다.

이재현의 배번이 바뀌면서 남은 15번

에는 장충고를 졸업한 신인 투수 신윤호가 받았다. 신윤호와 입단 동기인 신인 이호성은 55번, 박권후가 69번, 서현원 28번, 김재상 0번 등을 단다.

또 내야수 김동진은 24번에서 3번으로, 공민규는 56번에서 9번으로 번호를 바꿨고 외야수 김동엽과 투수 최하늘, 김서준도 27번, 53번, 60번에서 각각 38번, 19번, 53번으로 등 번호를 교체했다.

박 감독은 프로 무대 첫 승승인 김재박 전 감독이 현대 유니콘스 시절 쓰던 등 번호 70번을 선택했고 이병규 신임 수석 코치는 박 감독이 사용하던 79번을 단다. 김우정 기자 kwj@maeil.com